앞으로이 도리를 모른다면 점점 살기가 희박해집니다

☞ 21면에서 계속

났단 말입니다. 다 났는데 그것이 지수화풍이 아니면 그렇게 생명이 날 수가 없습니다, 그게 규합이 안 됐다면. 그래서 그 위대한 생명을 발견했고 조성해서 참, 그 몸을 형성시켰는데 미생물이 거기서 탄생을 한 것도 우연히가 아니라 그건 자성(自性)으로서의 한생각입니다.

그러니 그것이 그렇게 태어나서 수없이 거듭거듭 해 오다가 보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나 연구할 때, 처음에 물건을 하나 만들었을 때 처음 물건을 만들었기 때문에 찌그러질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그 생명의 모체를 조화를 이뤄서 형성시키는 데, 물질을 형성시키는 데 많은 실패를 했단 얘깁니다. 실패라기보다는 잘못 만들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시공이 없이 방치해 뒀단 얘깁니다.

우리 인간들의 생명이 살아나가는 데는 시공이 있어서 이것이 차곡차곡 순서가 있어야 하는데 이건 순서가 없이 시공이 없이 놔뒀기 때문에 물씬물씬 그냥 자랄 대로 자라는 거고 악할 대로 악하고 이렇게 되니까 그 물질이 상당히, 그 생명을 생명들끼리 잡아먹게 되고 또 형성시켰으나 모든 그 모습이 흉하고 그래서 실패작이 됐습니다.

이게 거듭거듭 서너 차례 실패를 하고 보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되는데 우리 이 조선으로선 단군이 한 가정의 어버이로서 그 길을 일러 줬다고 봅니다. 그런다면 두 번째의 대의적인 문제를 일러 주신 건 석가라고 본다면, 우리가 석가나 단군할아버지가 아니 계셨다면…, 지금 안 계신다 하더라도 그 단군이나 석존이 안 계신 게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이 바로 그 자손이기 때문에, 그 나무가 하나 이렇게 섰으면 씨앗이 거기 열려서 수많은 씨앗이 나왔다는 그 조건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 바로 여러분이 단군도 되고 석존도 되고 다 되는 것입니다. 일체제불이 다 되시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낮고 누가 높고 누가 깨닫고 누가 깨닫지 못하고 이런 것을 따지겠습니까? 참, 그런 분은 어리석은 분이라고 볼 수밖엔 없습니다. 왜 저렇게 어리석은가? 자기로서는 어리석은 게 아닙니다. 그분으로서는 어리석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한번 이렇게 하는 바람에 힘이 없어서 주저앉는다, 또 방해를 놓는다면 입도 떼지 못할 거다' 이러한 자기의 생각으로써 여기에 온 것이죠.

아무튼 여러분은 참, 다 부처고 법신이고 다 보신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내 몸을 보호하고 이렇게 나가는 그 보신, 또 여러분의 생각이 현실로 나오니 법신, 예. 그러니 그 얼마나 교묘하고 광대무변한 여러분이시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천차만별로 차원이 있기에 그런 분도 있고 저런 분도 있습니다. 그거를 원망은 안 합니다. 이것도 바로 내가 있기 때문에 그분이 오셨지 내가 없었더라면 어떻게 그분이 오셨겠습니까? 망했든지 좋았든지 간에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오신 것을 바로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분이 오셨기에 내가 한번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지 않은가. 고맙다.' 이렇게 내용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무방비 상태로 뒀기 때문에 그렇게 세 번이나, 참 두 번이나 그랬고 적게 한 번이 돌아갔으니 세 번이라고 볼 때, 우리가 생각하기엔 천지개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천지개벽! 그렇게 실패를 하고 보니 인간으로 태어났고 우리 인간이 됐습니다. 인간이 됐으니만큼 인간으로서 허무하다, 죽는다 이런 걸 떠나서 우리는 자유자재권을 스스로 가지고 있는 거고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천지의 신이 따로 있고 사람들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보고 나갈 문이 있고 그렇지만 저 부처님께서는 가만히 앉아서 드나드십니다, 가만히 앉아서. 저 부처님이, 어떤 분은 '저거 형상인데, 뭘.' 하죠? 처음에 배울 때는 형상으로 봐야 하고 나중에 진짜 알았을 땐 스스로서 부처인 줄 알게 된다 이겁니다.

자기도 그렇게 허무하다 그러지만 이 몸뚱이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소라 껍데기, 껍데기가 소라가 아니고 소라 알맹이가 소라다. 소라라는 것도 이름이기에 그 살 속에는 또 마음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 영원한 생명이라는 게 있다. 그런데 우리도 그와 똑같은 문제니까 말하기 이전, 생각하기 이전 나를 진짜로 믿고 그렇게 맡겨 주신다면 여러분은 참, 이 세상에 어디다 내세워도 정말 창살 없는 감옥에서 벗어난 대인이실 것입니다. 대인입니다. 대인이 되시는 겁니다. 그걸 부처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도 얘기하던 끝이, 그렇게 과학이 발전이 돼서 그렇게 앞으로 물속으로 떠다니고 아무리 그런다 할지라도 요 묘한 말을 어떻게 해야 여러분이 잘 알아들으실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지수화풍으로서의 위대한 생명을 조성해서 형성시켰고 육신을 형성시켰고, 그렇게 작업을 해서 수없이 실패를 하면서도 또 발전을 해서 이날까지 계발을 해 가지고 여기까지 올라온 겁니다.

그러면 무의 세계의 무전자, 유전자 또는 지금 현재의 형성된 이 모습! 이런 문제가 바로 유전자의 그 미지수의 일들이 바로 우리를 이렇게 해 놓기 때문에 우리는 유전자로서 형성이 되고 형성이 됨으로써 발전을 이루어서 우리들은 주인으로서 하는 겁니다. 우리는 최초의 지수화풍이 그렇게 위대한 생명을 참, 방대하게 그렇게 조성했을 때 바로 그때도 있는 겁니다. 그때에 우리도 있었고 지금도 바로 그분들이, 바로 그것들이 우리가 된 셈이죠.

그러면 왜 부처님 따로 있고 신이 따로 있고 우리가 따로 있습니까? 이거를 세밀하게 아신다면 우리는 지금 온 누리에 어떠한 육해공군이 있다 하더라도, 정치를 하는 사람이나 모든 면에 있어서 모든 걸 지시할 수 있는 겁니다. 왜? 모든 것이 내가 될 수 있고, 내 모습 없는 바로 나는 그 사람이 돼서 그 모습으로써 그 마음이 한마음이 돼 줌으로써 그것은 경제난에도, 육군에서도 공군에서도 해군에서도, 정치하는 사람들도 모두가, 경제발전도 그렇고 공업의 발전도 그렇고 사람이 마음을 조절해서 잘되는 이치도 바로 내가 돼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도 말했지만 나쁜 마음을 먹고 나쁜 행동을 하다가 좋은 사람의 마음이 거기 합세를 해 주니까 좋은 일을 하고 다니거든요. 이 몸뚱이는 마음에 따라서, 운전수에 따라서 차가 끌려다니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아, 구덩이에 빠지지 않고 남을 치지도 않고 좋게 다니고 그러는 거와 같이, 사람도 좋은 일만 하고 그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나중에 그렇게 잘된 연에, 마음이 좋게 된 연에, 행동도 그렇게 하는 연에 그 마음을 도로 쑥 빼 와도 그 마음이 그 마음으로 그냥 서 있단 얘깁니다. 그래서 밀물 썰물이 있듯이 물이 고였다가 좀 더 부자연할 때는 밀물이 돼 주고, 더 좀 할 땐 썰물이 돼 주고 이러는 활용! 이러한 문제가 지금 여러분이 알아서 시급하게 지금 써야 할 일이 아닌가 봅니다.

앞으로는 여러분이 이 도리를 모른다면 점점 살기는 희박해집니다. 여러분이 참, 여러분 가정에 조화를 이루면서 향내를 내면서, 만 가지 꽃이 피어 만 가지 향내를 내면서, 열매를 맺으면서, 열매를 또다시 심으면서, 끊임없이 그 서원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 도리를 알아야만이 우리가 불국토를 이루지 않나. 불국토가 뭐 다른 게 불국토입니까? 우리가 천차만별로 차원이 되는 거, 차원이 높아짐으로써 우리는 그렇게 오관을 통해서 그 수레바퀴가 스스로 돈다는 걸 알고 자기가 자발적으로 책정을 해 가면서 자기가 그 단추를 누를 줄 안다면 바로 불국토입니다.

지금도 개발을 해서 로케트가 올라가고 이렇게 하지만, 앞으로는 전자력 원료를 쓰고 원자력을 다 발동해서 또는 전자나 원자나 다 써서, 우리는 갈 때도 올 때도 사는 것이 풍부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지금 우리 인간이 이렇게 멋진 인간으로서, 이 혹성의 주인으로서, 또 혹성의 주인만 되는 게 아니라 온 우주 전체의 주인이 된다 이겁니다.

그건 왜? 우리는 지금 국내의 주인이지만, 우리 국내를 위해서는 전 세계를 조절할 줄 알아야 국내를 위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국내를 잘 리드해 나갈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참, 안전한 방석을 가질 수 있다 이런 문제도 되죠. 그럼으로써 전 세계를 도우려면 우주를 또 서로 상응하면서 이심전심으로써 돌아갈 줄 알아야 된다는 얘깁니다. 우주의 주인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 여기뿐만 아니라 딴 동네도 있고, 저 동네도 있고, 은하계의 동네도 있고 참, 금성 동네도 있고 여러 동네가, 아주 은하계도 동네가 많습니다. 허공에도 지금 수많은 생명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한생각에 그것이 모아지고 펼쳐지고 한다는 거, 그 얼마나 위대한 주인이시며 얼마나 그게 묘법입니까? 난 자부합니다. 어떤 스님이 "너 깨달았느냐?" 이러지마는 난 깨달았단 말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난 그냥 할 수 있다라는 얘기만 하는 겁니다. 왜? 내가 한마음이라 함은, 전 우주에 그 생명체들의 마음이 한데 모였다가 흩어졌다 하는데 누가 감히 혼자 내가 했다 이러나요? 어림도 없어요.

그러니 내 이 모습이 있기에 내가 그렇게 그것을 발전하고 깨닫고 계발하고 이랬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다 이겁니다. 얘기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것이 바로 이런 얘깁니다. 하지만 우리가 얘기를 했어도 얘기한 사이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내놓을 게 없는 마음이요, 나도 내놓을 게 없는 마음이니 어찌 둘이겠습니까? 그리고 어찌 말을 했다 하며 어찌 들었다 하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역력하게 말은 했고 역력하게 들었잖습니까? 한 사이가 없습니다.

요다음에 그것에 대해서도 얘기해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부분 부분 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수많은 생명의 그 주인들이 수많은 혹성들에 다 있고 행성에 다 있고 그런데 왜 우리만 여기 살고 있는지. 그렇게 나, 나, 나, 나 하다간 고만 저 이웃에도 가 보지 못하고는 그냥 옷을 벗는단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그렇게 옹졸하게 생각 마시고 넓혀서 오늘 저녁거리가 없다 하더라도 '당신이 억겁을 통해서 형성시켜서 조화를 시켜서 살아왔으니 당신이 더 잘 알 거 아닌가. 내가 뭘 아나.' 하고선 맡기는, 즉 말하자면 심부름꾼, 시봉자! 시봉자가 돼서 그렇게다, 조그만 아이가 어머니나 아버지 믿듯 그렇게 믿고 모두 맡겨 놓는다면 어머니 아버지가 어련히 오죽이나 잘해 주겠습니까? 그거와 같다 이 소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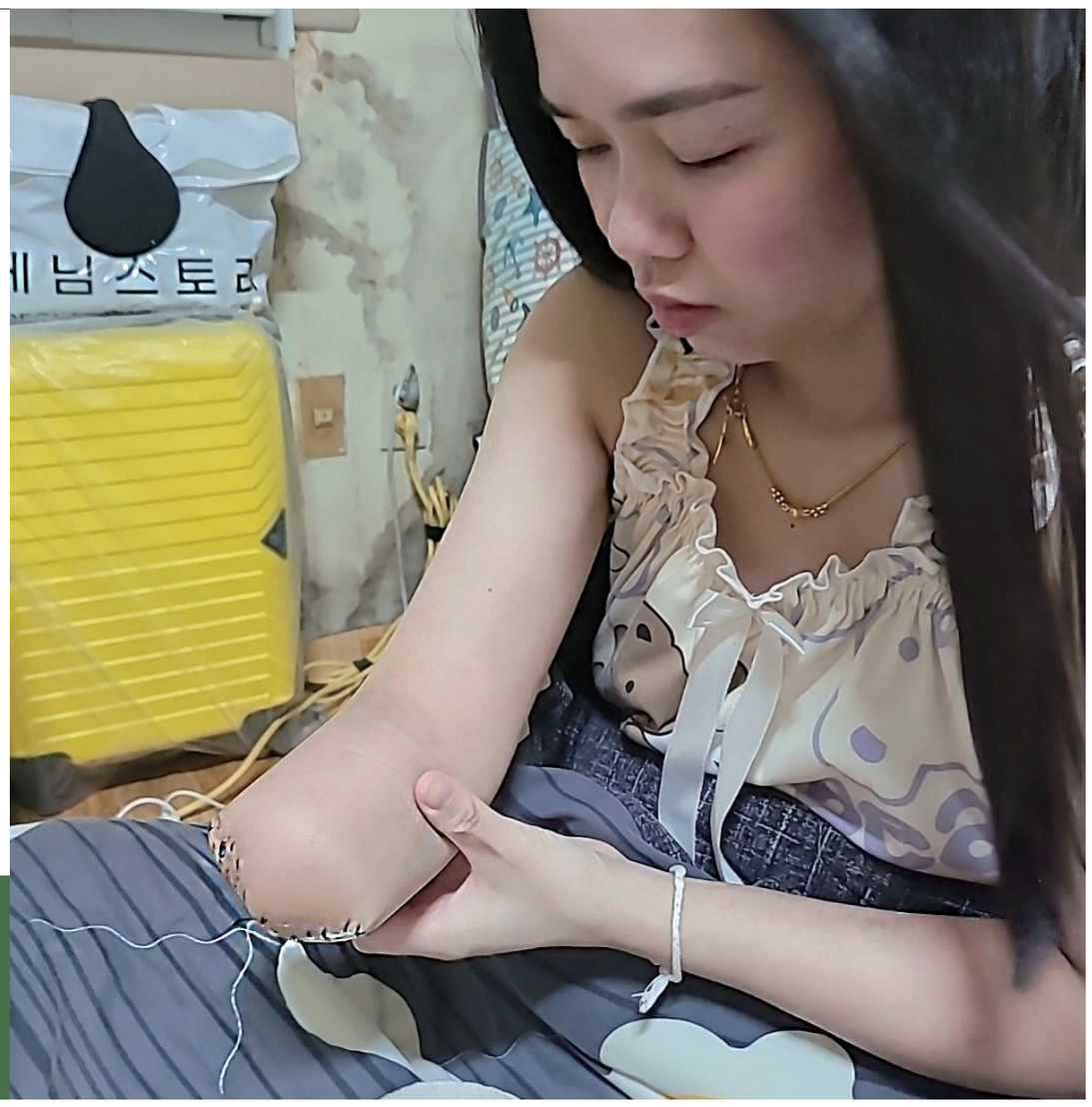
생각하기 이전 나를 진짜로 믿고 맡겨 놓는다면
여러분은 이 세상 어디에 내세워도
창살 없는 감옥에서 벗어난 대인이 되실 것입니다.

※위 법문은 대행 선사 법문집 《허공을 걷는 길》 중 1986년 11월 16일 정기법회 법문의 일부를 정리한 것입니다.

일일시호일

컨테이너 벨트에 팔 잃고
두 딸 생각에 눈물만

태국 노동자 우사씨 "귀향하게 도와주세요"
재활치료 · 후유증에 의수제작비 없어 삼중고



농협 301-0189-0356-51 국민 023537-04-004063 예금주:일일시호일
후원신청전화 070.4707.1080
♥정기 후원 한 달에 만원
이주노동자 지원 사업 국내 취약 계층 지원 사업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 해외 지원 사업